

신학기 2주 앞두고 2단계로... '매일 등교' 기대반 우려반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까지 거리두기 2단계 유지면 유치원, 초1·2학년 매일 등교
학력격차, 사회적 향상 등에 '긍정'
3~4월 4차대유행 가능성에 '걱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 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3월 신학기를 2주 남겨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 2단계 이하로 하향한 바 있으며,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전파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예정대로 3월 2일 등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교육부 발표대로 전국 학교들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 오프라인으로 새학기를 시작할 예정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가곡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공동취재단

이다.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한 학년에 100명씩 전교생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1~2학년 200

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밀집도 3분의 1 원칙을 지키게 된다. 총 333명까지 등교할 수 있는 셈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됐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비 등교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 당국은

학교 방역지원 인력을 확보했다. 교육부는 약 1900억원을 투입해 학교 내 소독과 생활지도 등을 도울 학교방역 인력을 총 5만 명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초·중·고는 학교 규모별로 3~5명을, 유치원은 1명씩을 기본으로 하고 여건에 맞춰 추가 투입된다.

학교 안에서의 방역 수칙도 강화됐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새로운 방침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는 둔화했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그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의 확산 여파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인 데다, 각 지역 기관에서 집단발병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까지 치솟자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등교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력격차와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코로나19 3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 초봄 4차 대유행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3월부터 등교하게 될 학생들은 임상시험 검증이 없어 접종 대상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고, 교직원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의 학습 성취도나 생활습관을 생각하면 등교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백신도 맞지 않고 국민 집단면역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학년 친구들이 모여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걱정된다"면서 "1~2주 단위로 등교와 재택수업을 반복했던 지난해 상황이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등 저학년 모든 학급에 협력강사 투입

서울시교육청 563개 공립 초교
1500명 기초학력 협력강사 배치
담임 교사 보조하며 맞춤형 지도

서울시교육청 관내 563곳 공립초등학교 1·2학년들은 오는 3월부터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협력수업을 운영한다. 최대 1500명의 기초학력 협력강사들이 정규 교과 수업 시간 내 담임교사 수업을 협력·보조해 교실 안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해 맞춤형 지도를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담임교사와 함께 가르칠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협력강사는 학교 수요에 따라 많게는 1500명까지 선발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고 수업 내에서 학

습부진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협력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주당 2시간,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주당 2시간을 기본 방향으로 지원한다. 수업에 함께 참여해 분리할 필요는 없으나 배움이 느린 학생을 격려하며 돕는 '개별지원' 방식도 가능하다.

원격수업으로 등교가 중단되면 초등 1·2의 원격학습 지원이나 기초학력 대면 지도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교육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뿐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하는 초등학교 학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 모집은 각 초등학교가 직접 진행한다. 학교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구인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강사가 되려면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현행법상 '강사' 자격이 있는 대졸자,

전면대·고졸로서 각각 2년 이상,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여야만 한다.

강사들은 시급 2만2000원을 받도록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한다. 강사에게 지급할 인건비와 보험료는 시교육청이 부담하며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수한 협력강사를 확보하기 위해 퇴직교원과 교원임용대기자, 교원 자격소지자, 교원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예비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선발된 강사들은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 EBS원격교육연수원, 한국교원연수원 등 3곳에서 사전 소양교육 원격 연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5일 서울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한 3월 신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정했다. /이현진 기자



김일목 삼육대 총장(왼쪽 두번째)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왼쪽 네번째), 관내 대학 총장들이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육대

삼육대, 노원구와 '평생시민대학' 운영

관내 7개 대학 공동 운영키로

삼육대를 비롯한 관내 7개 대학이 학교 교육시설을 개방해 노원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위한 '노원평생시민대학'을 운영한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노원구는 삼육대, 광운대, 서울과대, 서울여대, 육군사관학교, 한국성서대, 인덕대 등 관내 7개 대학과 지난 9일 오후 노원구청 소강당에서 '노원평생시민대학 관·학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대학은 교육시설을 개방해 지역주민에게 대학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

다. 노원구는 대학별로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하며,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특히 삼육대는 건강과학특성화 분야 강점을 살려 '힐링도시 노원구민을 위한 테니스' '힐링도시 노원구민을 위한 스쿼시' 2개 강좌를 오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일목 삼육대 총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시민 재교육과 같은 평생교육 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육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제공해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신성철 총장 "세계 10곳에 카이스트 설립"

카이스트 개교 50주년

미래비전 '10-10-10 드림' 선포

카이스트가 인류 난제 해결이나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10명의 '특이점 교수(Singularity Professors)'를 양성한다. 또 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의 데카론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하고, 전 세계 10곳에 카이스트를 설립한다.

카이스트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16일 오전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신성철 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이스트의 미래 비전 '10-10-10 드림'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날 "반세기 만에 일군 대한민국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과 경이적인 경제 성장 뒤에는 KAIST가 함께 해왔다"며 "KAIST가 이룬 성취의 기반에는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 지원, 국민의 절대적 성원과 KAIST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를 전할 예정이다.

신 총장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구

낸 성공의 유산에 더해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대학'의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자 두 번째 꿈을 향한 도전과 혁신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대학의 미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은 '한국을 빛낸 50년, 인류를 빛낸 100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카이스트의 설립유공자들과 함께 과거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방역 지침을 엄수해 진행되며, 온라인 청중 150인과 함께하는 행사의 모든 순서는 카이스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사이버한국외대, 1학기 2차 신·편입생 모집 내일 마감

사이버한국외대가 16일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마감한다.

모집학부·학과는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마케팅·경영학과 ▲산업안전학과 ▲다문화·심리상담학과 등 총 9개 학부·학과다.

수능 및 고교 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라

면 지원할 수 있다. 평가항목은 지원동기, 학업계획 등을 기술하는 자기소개서(70점)와 객관식 50문항으로 이뤄진 학업소양검사(30점)이다.

신입학 외에도 국내외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면 2학년 편입학 및 3학년 편입학에 지원이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